

신화는 인생과 삶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스위치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다시, 신화를 읽는 시간

조지프 캠벨, 권영주 옮김

“새로운 신화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언제까지도 오래되고 영원한 신화일 것이다. 그것을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에 맞춰 다시 쓴 신화다. ‘민족’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개인을 깨워 그들 자신을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인 신화다. 새로운 신화는 우리가 자아를 아는 별에서 자라나기를 벌이는 자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방된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방식으로 모든 것과 하나인 이 세계에 지평은 없다.”(본문 중에서)



과거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평했다.

1904년 뉴욕에서 태어난 캠벨은 어린시절 아메리칸 인디언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책을 읽었다. 맨해튼 미국자연사박물관을 자주 갔으며 토템에 관한 자료에 매료되었다. 평생에 걸쳐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신의 가면’, ‘신화의 힘’, ‘신화의 세계’ 등 신화와 연관된 책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그는 신화학의 거장이다.

‘시대를 초월해 신화의 세계로 입문하는 한 권의 책’이라는 상찬을 받는 ‘다시, 신화를 읽는 시간’이 발견됐다. 1972년 첫 출간 후 49년간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해오고 있다. 책의 주제는 “신화를 읽는 것은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이다”로 압축될 수 있다.

왜 신화를 읽어야 할까. 삶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신화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힘에 관한 이야기로, 그 힘은 우리를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 신화는 곧 ‘인생의 답을 찾아 내면으로 떠나는 여행’이며 그 과정은 크고 작은 모험이자 상징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신화의 가장 큰 상징적 효과는 각성이다. 단순한 깨달음이 아닌 삶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 상징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요새말로 ‘스위치를 켜주는데’, 스위치가 켜지면 특정한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이끈다. 그래서 개인이 삶에 참여하고 사회집단이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지난 1987년 타계한 조지프 캠벨은 신화 전문가다. 신화종교학자였으며 비교신화학자이기도 했다. ‘빌리지보이스’는 그를 가리켜 “광대한 파노라마 같은 인간의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외벽에 조각돼 있는 ‘우주 바다를 짓는 신들’.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메테우스’.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 저자는 최초 신화적 사고는 네안데르탈인이 생존했던 기원전 약 25만 년전에서 5만 년으로 추정한다. 석량, 장례용품, 도구 등을 묻은 매장한 무덤이 있다. 매장 관습을 봤을 때 “영생까지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 내세의 개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끄는 분야는 역시

사랑이다. 저자는 사랑의 이미지 중 가장 놀라운 사실을 페르시아에서 찾는다. 사탄이 누구보다 신을 사랑하고 충실한 존재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신이 인간을 만들고 천사에게 가장 소중한 작품에게 철하도록 명령했다. 우리는 루시퍼가 자존심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슬람교에서는 신을 너무나도 강렬하게 사랑한 나머지 다른 존

재 앞에서 머리를 숙여 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한다. 그 때문에 그는 지옥으로 떨어져서 자신이 사랑하는 신과 영원히 헤어져 지내는 벌을 받았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신화의 영웅, 사탄, 신비주의자, 조현병 환자의 내적 여행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그들의 귀환이나 증세의 완화는 ‘재생’으로 체험된다는 데 있다. 현실의 지평에 구속되지 않는

‘겨듭난’ 자아가 탄생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에 신화의 자리는 어디일까. 저자는 지구라는 이 우주선에는 이제 ‘다른 곳’이 없다고 단정한다. ‘다른 곳’과 ‘국외자’를 계속 가르치는 신화는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새로운 신화는 또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이어야 하는가?” <더퀘스트·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삶의 무기가 되는 속담 사전

권승호 지음

‘가자니 태산이요 돌아서자니 송산이리’는 말이 있다. 앞으로 가려 하니 태산이 막고 있고 뒤돌아가려니 송산이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태산과 송산은 높은 산을 가리키는 말로, 힘들다는 뜻을 지닌다. 이렇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처지를 이르는 말이다.



‘두부 먹다 이 빠진다’는 속담도 있다. 옛이나 떡을 먹다가 이가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두부 먹다가 그런 일은 거의 없다. 말안죽순 재수가 없으면 두부 먹다가도 이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방심하면 쉬운 일임에도 큰 낭패를 본다는 의미다.

544가지의 속담을 정리한 책 ‘삶의 무기가 되는 속담 사전’은 유용하면서도 흥미롭다. 전주영생교 권승호 교사가 펴냈으며 ‘544가지 속담으로 키우는 지식과 지혜’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저자는 다년간 속담 공부와 연구를 통해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속담을 엄선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절로 수긍이 가는 내용이다. 익히 알고 있던 속담도 있고 낯선 속담도 있지만 현실에 적용하면 모두 도움이 될 만하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농사꾼은 죽어도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속담이 있다. 굶어 죽으면서도 농부는 씨앗을 남겨둔다는 의미다. 다른 뜻으로 “후손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아름다움”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결실의 계절에 새겨들을 수 있는 속담도 있다. ‘돌도 십 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가 그것. 어느 분야든 10년간 한 우물을 파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뜻을 이룬다는 말, 한번쯤 새겨들을 만하다. <지노·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포토타입

이중섭 지음

원형은 아들을 대신해 궁궐 수문군 아르바이트를 한다. 첫날부터 깃발을 들고 행사에 투입되지만 고문관으로 낙인이 찍힌다. 마치 군대에 다시 끌려온 기분이다. 궁궐 수문군과 관광객들이 어울려 기념 사진을 찍는 포토타입이라는 체험행사가 있다.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수문군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타입은 원형에게는 새로운 세계로 비춰진다. 원형은 점차 포토타입에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



고흥 출신 넷꾼이 이중섭 작가가 펴낸 장편 ‘포토타입’은 기억에 대한 이야기이다. 궁궐 수문군 교대의식의 절자인 포토타입이 기억의 재구성으로 활용된다. 자폐증이 있는 딸과 매일 전쟁을 치러내야 하는 원형은 수문군 교대의식에서 또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어느 날 포토타입에 젊은 시절 그리움을 가졌던 첫 사랑과도 같은 여인이 찾아온다. 원형은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모든 기억을 흡수하던 시절을 돌아본다. 그때와 지금은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어린 시절의 흑백 사진은 비록 흐릿하지만 행복하다고 속삭인다.

작가는 기억은 생물과 같아 태어나고 성장하다 소멸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본다. 오에 겐자부로 작품에는 ‘나의 나무’ 이야기가 곧잘 등장하는데 사람마다 자신의 나무가 있어 나무뿌리에서 혼이 내려오고 죽으면 다시 나무에게로 돌아간다. 어린 자신이 나무에 오래 서 있으면 나이 먹은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설은 나무 아래에서 어린 나를 기다리는 어린 나와 너, 함께 독일을 걸었던 껍뚱이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이다.

이순원 작가는 추천사에서 “‘포토타입’은 저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지나는 시간을 돌아보게 하고 또 걸어 나가야 할 시간을 꼭진하고도 필진하게 바라보게 한다”고 평한다. <문이당·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거리에 핀 시한 송이 글 한 포기

성프란시스대학 편집위원회 엮음

성프란시스대학이 개교 15주년 기념으로 노숙인 문집 ‘거리에 핀 시한 송이 글 한 포기’를 펴냈다. 두툼한 문집 속 짧은 글들의 필자는 성프란시스대학의 1년 인문학과정의 거쳐간 노숙인들이다. 성프란시스대학은 지난 15년간 졸업문집에 수록된 167편을 골라 이 책에 실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초등학교만 마친 이부터 6급 공무원을 지낸 이까지 교육받은 정도도 살아온 계층도 다르지만 글에 공통적으로 묻어나는 건 지독한 자기혐오와 고립감이다.



책은 ‘서울역 일기’, ‘거리의 인문학’, ‘사랑이 저만치 가는데’, ‘길벗 도반’ 등 4부로 구성됐다.

장대비 속에서 배식을 받아 밥을 먹다가 식판에 떨어지는 빗물을 보며 써내려간 ‘빗물, 그 바야암’ (권일혁)부터,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한 아내가 자신이 믿었던 후배와 부정을 저지른 걸 알고 자폐의 길에 빠져 폐지를 수집하는 노숙인이 된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리어카를 끌고 여름바다로’ (박진홍), 서울에 상경해 돈을 떼어고는 노숙인의 삶을 살게 된 영화보다 영화 같은 이야기 ‘내 인생은 황해중’ (고(故) 이대진), 보육원에 맡겨진 후 미국의 가정으로 입양되기 직전, 같이 지내던 친구의 땀에 빠져 보육원을 이탈한 남자의 삶을 다룬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걸까요’ (노기행) 등의 글이 담겼다. 이밖에 ‘빈 강동 같은 인생’,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바보 선생이젠 돌아가시오’, ‘어떤 편지 한 통’ 등도 수록됐다.

노숙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자신의 뜻과는 무관하게 집과 가족을 잃고 길바닥을 떠도는 삶을 살 수도 있음을, 불행은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는 평범하지만 놓치지 쉬운 진실을 전한다. <삼인·1만9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